

가정과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윤 인 경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I. 서 론

1886년 이화학당에서 몇 명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한 우리 나라의 가정과 교육은 이제 100여 년이 되었다. 그 동안 학생 수의 증가, 수차례에 걸친 교육과정의 개정, 남학생에게의 교육 기회 확대 등 많은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제 가정교과는 중학생이면 누구나 이수해야 하는 교과가 되었으며 교사의 수도 전국적으로 6,000여 명에 이른다. 오늘의 가정과 교육이 있기까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수많은 선배 가정학자와 교사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루어진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깝게는 제 7차 교육과정의 편제를 결정할 때를 비롯하여 아직도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교육부의 중요한 정책에서 가정과가 고려되지 못할 때, 교육행정가 등 교육정책 입안자들의 구성에서 가정교육자들이 제외될 때, 교육현장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의 가정과 교육에 대한 수많은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들을 때 등 지금도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가 있기에 늘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

지금 우리는 제 7차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그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될 21세기는 정보화, 세계화 등 지금과는 다른 세계가 전개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점에서 그 동안의 가정과 교육을 돌이켜 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전망하는 일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라 가정과 교육의 현실에 근거하여 몇 가지 측면에

서 가정과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II. 본 론

학교 교육의 핵심은 교과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인간성 교육, 창의력 함양, 환경교육, 세계화, 열린교육 등이 중요하다고 해도 교과교육을 등한시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

교과교육은 학교 교육에서 교사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학생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교과를 운영하는 것으로 교수·학습의 핵심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교과교육을 위해서는 교과에 대한 교사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교과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과 연구를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그 가운데에서도 가정교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일반적으로 교과 교육에는 해당 교과의 철학이나 원리,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교육매체, 교육평가, 교육 연구 등의 영역이 있다.

여기서는 가정과 교육의 영역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현재의 실정을 근거로 새롭게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교과와 가정교과의 성격

교과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사용한 "7자유과"로부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교과(Subject matter)」는 「교육목적 달성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이 논리적으로 체계화 된 것」이라고

〈표 1〉 가정과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가정과 교육의 영역	이전의 관점	새로운 관점
교과의 성격	○ 교양교육	○ 교양교육 + 직업(전문)교육
학문적 특성과 내용의 구성	○ 이론적 지식 중시 ○ 영역별 접근	○ 실천적 지식 중시 ○ 통합적 접근
교육의 목표	○ 가정생활에 필요한 능력 중심	○ 개인의 능력개발 ○ 가정생활에 필요한 능력개발 ○ 직업생활에 필요한 능력개발
교육의 대상	○ 여성, 청소년	○ 여성과 남성, 아동~노인
교육의 범위	○ 정규교육	○ 정규교육 + 비정규교육
교육의 방법	○ 일제식·강의식 수업	○ 학습자 참여 수업
교육의 평가	○ 지필·실기·결과평가	○ 능력·과정·수행평가
교육의 연구	○ 내용학 중심	○ 교과교육학 중심

말할 수 있다. 교과가 생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조건이 있다. 교과는 인간의 가치를 드높이는데 직결되어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으며 일정한 준거를 가지고 그 생성을 되풀이하고 있는 문화 요소 중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설정되어 온 학문이나 경험의 분야이다.

가정교과는 농업, 상업 등과 함께 산업혁명 이후 국민교육을 위해 학교교육이 보급되고 직업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점차 강화되었다. 즉, 삶에 대한 준비의 한 형식으로서의 요청이었으므로 생활에 유용해야 했다. 그러다가 가정학의 시작과 함께 가정학을 학문적 근거로 하여 오늘날과 같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가정과 교육은 가정학의 여러 영역 중 가족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봉사의 하나로서, 가정학의 여러 영역에서 연구된 결과를 초·중등 학생의 발달적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학교교육을 통하여 교육하는 것으로 가정학의 발전과 깊은 관련을 갖고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가정학은 설립시기부터 미국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미국 가정학계에서와 같이 가정학의 세분화, 전문화 현상이 나타났고,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 결과 가정학자나 교사들은 가정학을 축소한 것이 가정교과라고 인식하여 왔으며, 이러한 인식은 교육과정 개발이나 지도내용의 선정, 교과서 개발 등으로 이어져 왔다. 따라서 가정과 교육은 가정교과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가정학의 독자적인 분야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한편 학교교육에서의 가정 교과는 초·중등학교에서의 교양교육과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예비직업교육이나 직업준비교육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교양교육이 강조되어 온 것에 비해 직업(전문)교육은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여러 가지 변화들은 직업교육으로서의 가정과의 역할이 중시될 전망이다. 따라서 가정과 교육의 이중적 역할이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2. 가정과 교육의 학문적 특성과 내용의 구성

가정교과 교육의 모학문이 되는 가정학에 대하여 장명옥은 '가정학이란 인간 및 가족과 이를 둘러싼 환경, 또한 인간 및 가족과 환경과의 관계를 통합적, 실천적으로 연구하는 환경이다.'라고 정의함으로써 가정학의 학문적 통합성과 실천과학으로서의 특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기열은 '가정학은 인간 생활을 기본으로 하여 가정 및 이와 긴밀히 관련된 사회현상을 대상으로 생활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인간생활의 개발을 도모하는 실천과학이다.'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실천과학으로 간주되었던 가정학은 그 학문적 성격이 경험과학적인 '기술과학'으

로 왜곡되어 개인, 가족 및 가정생활의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등 가정학 본래의 성격과는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가정학의 학문적 대상에 있어서도 의, 식, 주생활을 중심으로 한 물리적 측면을 강조하여 연구대상의 모호성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실천과학’으로서 가정학을 보는 견해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었는데 브라운(Brown, 1980)은 ‘문화전통은 규범과 같은 개인적 삶의 형태를 만들어 주고, 가족, 사회적 관계를 융합시키므로, 실천과학으로서 가정학은 가족이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문화전통을 전수한 인적 재생산이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인정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실천적’이라는 용어는 첫째, 행동과 관련된 개념인 ‘실천적인 것’과 진리탐구와 관련된 개념인 ‘이론적인 것’의 분류에 사용되며, 둘째, ‘실천적 행동’과 ‘기술적 행동’으로 분류하는 데 사용되는데, ‘실천과학’으로서 가정학은 이 두 가지 의미가 모두 적용된다. 또한 ‘실천적 행동’이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정치적, 도덕적 합의에 이르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합의에 의해 형성된 규범은 가치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실천과학으로서 가정학은 바로 이러한 ‘실천적 행동’을 통하여 관습과 전통을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개선해 나가는 자주적인 인간 형성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가정학은 본래 실천과학으로서 학문적 성격을 가지므로, 단순히 이론의 제시에 그쳐서는 안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실천과학으로서 가정학은 실천적 행동을 통하여 기존의 관습과 전통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한 가정학의 연구는 세부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각각의 부분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통합적인 시각에서 다루어야 하며, 이와 같은 통합된 지식의 실천적 적용이 필요하다.

가정학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가정학자들에 의해 내려진 가정학의 정의를 보면 가정학의 연구 대상은 궁극적으로 ‘가정’이며,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항상 강조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가정학이 ‘가정’이라는 고유한 학문적 대상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의 학문으로 성립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가정학의 연구 경향을 보면 가정학의 지나친 세분화, 전문화 경향으로 인해 연구대상의 모호성이 나타나고 있다. 失部(1983, 문수재 외, 재인용)는 이러한 가정학의 현상에 대하여 ‘현대의 분화사회에서 가정학도 예외없이 극도로 전문화하기 시작하여 타 분야와의 상관성이 결여되기 시작하는데 통합성을 찾지 못하면 가정학이라는 학문은 공중 분해하여 버린다.’라고 지적하였다. 문수재는 ‘최근 또 하나의 반성은 종래의 가정학이 너무 전문화되어 현실의 문제에 대응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이나 실용본위의 기술론에 기울어져 가장 중요한 인간에게 초점을 안 두었다.’라고 지적하면서 가정학의 전문화, 세분화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가정학은 가정생활을 중심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란 점을 중시하여, 가정학의 핵심인 가정을 중심으로 가족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통합적 접근에 교육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3. 가정과 교육의 목표

가정과 교육은 인간이 인간답게 성장하고, 사고하며 생활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기르며, 실제 생활에 적용시키는 생활교육을 하는 교과이다. 전인 교육을 하는 생활 교과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관심과 생활을 출발점으로 학생의 성장발달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가정과 교육의 목표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능력 습득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개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준비 등도 교육목표로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다.

4. 가정과 교육의 대상과 범위

교육을 정규와 비정규 교육으로 구분한다면 가정교과는 지금까지 주로 정규교육을 통해 가르쳐 왔다. 초등학교에서 다루는 실과 교과는 그 명칭은 다르나 중·고등학교 가정교과의 하위 수준이며, 이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그 근거를 확실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규 학교 교육에서의 가정과 교육은 초, 중, 고등학교에서 다루어지며 이는 전문대학이나 대학의 교육과 연계를 갖는다.

비정규 교육으로는 사회 교육이나 성인 교육 등을 들 수 있다. 조리, 제과·제빵, 의상 등과 관련

〈표 2〉 가정과의 목표에 포함될 수 있는 요소

개인의 능력 개발	가정과 가족생활에 필요한 능력 습득	직업세계의 이해와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해결력의 신장 ○ 사고력의 개발 ○ 창의력의 개발 ○ 의사결정 능력 습득 ○ 개인의 적성, 흥미 등의 개발 ○ 자아에 대한 인식 ○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식·주생활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기능 습득 ○ 합리적인 소비자로서의 자질 ○ 원만한 가족생활을 위한 가족관계의 이해 ○ 인간 발달의 이해 ○ 건전한 여가시간의 활용 ○ 가족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와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의 중요성과 직업 생활 이해 ○ 직업 세계와 가정교과의 관련성 이해 ○ 직업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확립 ○ 직업세계의 변화 이해 ○ 직업에 필요한 능력습득

되는 방과 후 활동,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업자를 위한 교육, 관련 학원이나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역사회 청소년이나 노인 등을 위한 교육이 포함 될 수 있다.

가정과 교육의 대상은 가정과 교육의 시작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여성을 주 교육의 대상으로 하였으나 성역할의 변화, 직업세계의 사회적 인식 변화 등에 따라 남녀 모두를 교육의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 뿐만 아니라 아동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5. 가정과 교육의 방법과 평가

가정교과는 학문적 특성으로 보아 종합하고, 응용하며, 실생활에서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는 암기식, 주입식 강의 방법과 객관식 평가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교과목의 특성이 무시된 채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교수·학습방법 측면에서의 우리 교육은 아직도 대부분의 수업이 강의중심의 획일적, 주입식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학교 교육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교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인간교육보다는 획일적이며 기계적인 인간을 양산하고 있다. 우리의 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서 교육제도나 교육시설의 확충 등과 같이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은 교사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장기간에 걸친 투자에 의해서만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교

수·학습방법은 교사의 노력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며, 변화를 위해서는 교사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교사의 역할이 크며, 해결의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여러가지 수업모형을 적용하는 논문들이 발표되기도 하고, 열린교육 등 새로운 교육 방법에 대한 시도가 일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수준에 미치고 있지 못하다. 개인이 타고난 능력과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 그리고 창조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학습자 참여 중심 수업으로 나갈 수 있는 교육방법의 모색과 실천이 필요하다.

평가에 있어서도 이론과 지필평가 위주에서 탈피하여 개인과 가정 생활의 영위, 직업 생활의 준비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중심의 능력평가, 지식의 습득 과정과 아는 것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과정평가와 수행평가 등을 지향하고 이를 위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

6. 가정과 교육의 연구

우리 나라에서 가정 교과교육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1989년 한국가정과교육학회의 창립 이후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전에도 교과교육에 대한 연구가 있었지만 그 비중이 교과 내용학에 비해 매우 낮았다. 대한가정학회의 활동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1959년부터 1997년까지 발표된 총 논문 1,535편 중 가정과 교육에 관련된 것은 28편

으로 전체의 1.82%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중·고등학교 가정과 교육에 관한 것은 19편에 불과한 실정이다. 제출된 총 논문 수에 대한 가정교육관련 논문 수의 비율을 10년 단위로 보면 1960년대에는 90편 중 3편으로 3.3%, 1970년대에는 239편 중 7편으로 2.9%, 1980년대에는 477편 중 5편으로 1.0%, 1990년대에는(1997년까지) 729편 중 12편으로 1.6%를 차지해 가정과 교육에 관련된 논문이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가정과 교과교육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은 각 학교에 개설된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이다. 1994년 현재 전국에 가정교육전공이 설치된 교육대학원은 16개이다. 그러나, 교과교육 논문이 학위논문으로 제출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실정인데 교과교육에 대해 연구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의 경우에도 1992년~1995년까지 발표된 35편의 학위 논문 중 교과교육과 관련된 논문은 14편으로 전체의 40%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1989년 창간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의 1998년 전반기까지의 총 논문은 131편이며 이 중에서 교육과정·교과서에 관한 논문이 20편으로 15.27%, 교과교육내용에 관한 논문이 30편으로 22.90%, 교수학습방법에 관한 논문이 29편으로 22.13%,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도에 관한 논문이 16편으로 12.98%, 기타 여러 내용의 논문들이 28편으로 21.37%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연구가 교과교육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과교육 분야 중에서는 철학 및 역사에 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교육평가에 관한 논문은 1편으로 0.01%, 교원교육에 관한 논문은 3편으로 2.29%, 시설·설비에 관한 논문이 4편으로 3.05%에 불과하여 철학 및 역사, 평가, 교사 교육, 시설설비 등에 관한 분야에도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III. 결 론

가정과 교육은 그 역사성이 깊은 것에 비하여 학교와 사회에서 환영받고 있지 못하며, 갈수록 그 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 환경, 인간성 상실, 가족붕괴, 과소비, 아동학대 등의 사회 문제는 모두 가정 생활과 관련되는 것들이

며, 건전한 가정 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가정과 교육 100년과 한국가정과교육학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 가정과 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1) 최근 21세기의 유망직종으로 의상 디자인, 조리, 제과·제빵, 노인관련업, 미용, 유아교육 등의 관련직이 부상되고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육의 성격과 범위를 교양교육과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사회교육, 성인교육 등으로 확대하고, 아동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위한 가정과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해야 할 것이다.

2) 가정과 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가정학의 학문적 특성을 반영하여 남녀 모두를 위한 실천적·통합적 지식과 경험을 중시하고, 가정생활의 질적인 향상뿐만 아니라 개인의 능력 개발과 직업을 위한 준비를 동시에 강조하며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에서 이를 적극 반영한다.

3) 교육과정은 학습자 중심으로 편성·운영되어야 하며, 교과서는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한 자료로 개발되어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교수·학습 매체는 교사 중심의 활용에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보조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4) 가정교과는 실생활에서의 적용과 체험을 강조하는 실천 중심 교과이므로 교수·학습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조리실, 의복구성실, 아동실습실, 주거실습실, 종합가정실습실 등 가정과 전용 실습실의 구비와 설비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며, 이는 교과 시간뿐 아니라 방과 후 활동 등에서도 계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5) 질 높은 교사교육 없이 가정과 교육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교사양성 과정에서 실천적·통합적 경험을 중시하고, 교사 연수 방법을 다양화하며 그 중에서도 교사의 현장 연수를 강화한다.

6) 가정교과는 인성발달은 물론 인간의 균형적 발달을 도와주어 건전한 가정과 사회,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교과이나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실이며, 특히 아버지들은 가정교과를 이수한 경험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가정과 교육의 직업교육 측면에 대해서는 가정과 교사나 가정학자들조차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므로 가정교과에 대한 범국민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7) 가정교과 교육에 대한 기초연구 없이 좋은 정책이 나오기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가정교과 교육의 여러 분야에 대한 연구가 고르게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수, 교사, 학생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곽병선 외(1988). 교과교육원리. 갑을출판사.
- 김경미(1993). 우리나라 가정학 본질 규명에 관련된 근본 개념들에 관한 분석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항이(1994). 우리나라 가정학의 당면 문제점과 그 역사적·철학적 배경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수재(1986). 미래의 가정학 연구의 가능성. 대한가정학회지 24권
- 문수재·이기열(1984). 한국 가정학의 미래발전을 위한 검토. 대한가정학회지 22권 3호.
- 박승재(1997). 교과교육학 강좌 편성 명세, 한국교과교육학회.
-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1995). 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과교육의 진단과 개혁과제
- 윤인경 외(1998). 중학교 가정과 수행 평가 방법 및 도구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교과교육공동연구소
- 외(1997). 제7차 실과 교육과정 각론 개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실과 교육과정 개정 연구위원회
- (1997). 가정 교과교육 연구와 실제의 매체. 한국교과교육학회
- (1993). 창의력 개발을 위한 가정과 교수·학습방법. 한국가정교육학회지. 5(1)
- 외(1990). 가정과 교수·학습 목표 상세화. 중앙교육평가원
- (1989). 가정과 교육의 발전적 탐색.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1)
- (1988). 가정·가사 교육의 성격 규명과 개선 방향. 한국교육개발원
- 이인희·이옥임(1990). 가정과 교수법. 수학사
- 장명옥(1989). 가정학원론. 교문사
- 정인성(1988). 교과교육론. 교육출판사.
- Brown. M. M.(1980). What is Economics: A Definition. Washington D. C: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